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M. O. Han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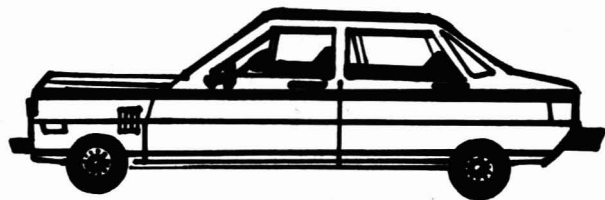
VOL. 8 No 1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anuary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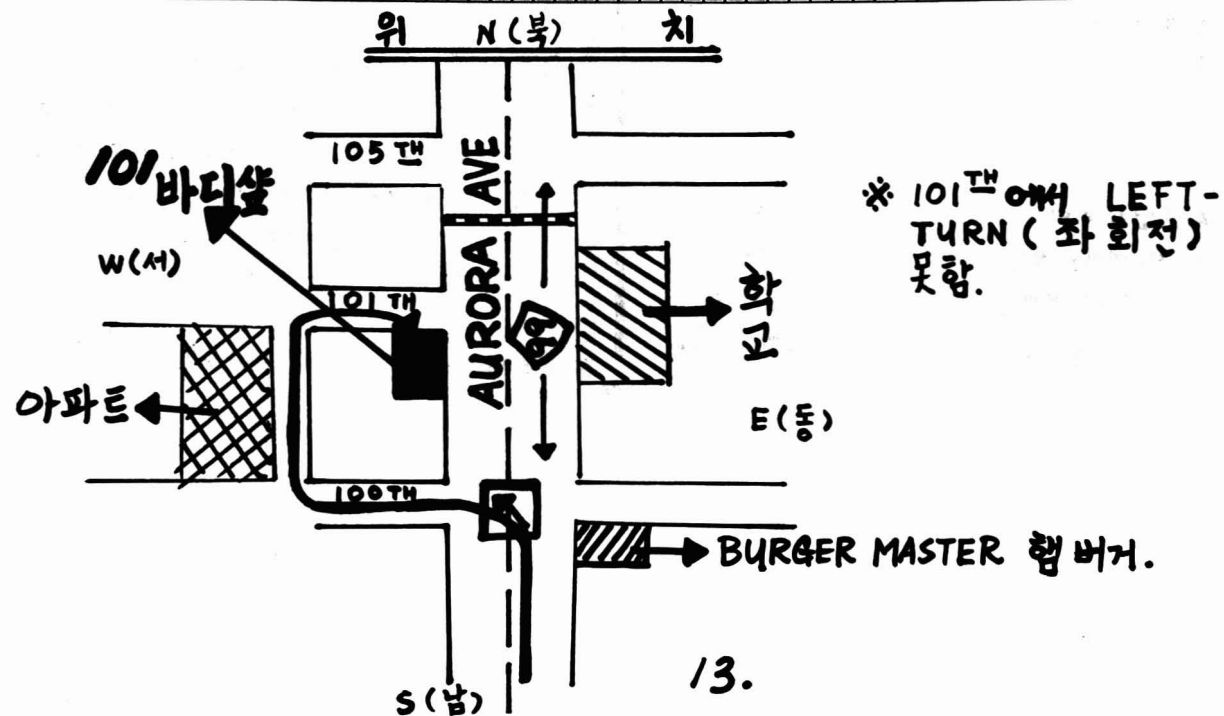
101 바디샵



차체수리 및 페인트 무료 토잉
 무료 전적 보험수리시문의환영
 고포분들에게 수리비를 절감해 드립니다.

주소: 10059 AURORA N.
 SEATTLE, WA. 98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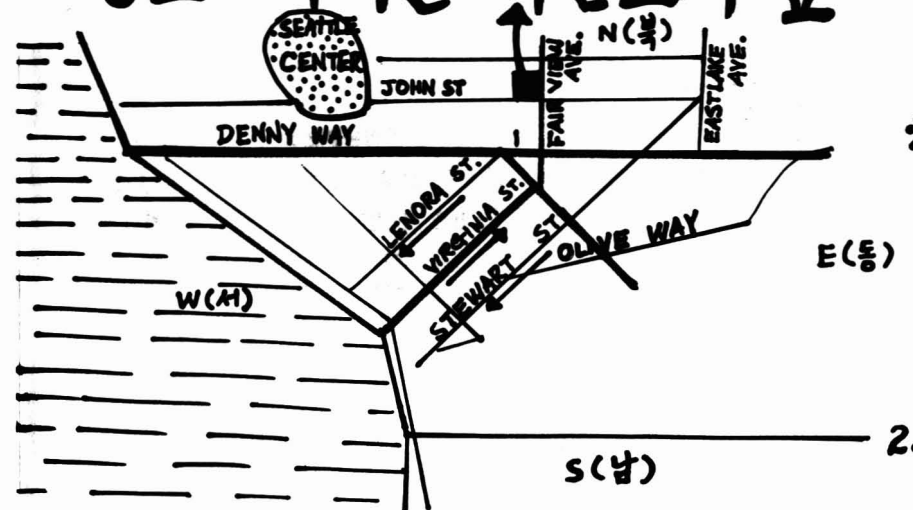
공장: 525-5778 집: 789-2655 집(NORTH): 367-0954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알림

한국인 전체를 모독하고
 경멸한 기사를 서슴없이
 실었던 씨애틀 타임즈 사
 에 분개하고 우리는 한국인
 의 긍지와 명예를 되찾고 후손
 만대에 권익을 위해 다음과같이
 쫓기하는 데모를 하오니 서슴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때: 1979년 1월 20일(토) 오전 11시
 장소: 씨애틀 타임즈사 앞



Koreans' dispute turning violent here

The shootings, the fighting, the shakedowns, as usual have to do with money. Some of the Koreans have it, some of the Koreans want it. There is territory to be gained and protected, and this small, subtle war of extortion rarely rises above the silent nodding and money exchanges in dark corners of restaurants, sauna baths and nightclubs in the Seattle-Tacoma area.

But now there have been three shootings in as many days, one of them unreported to police, and some of the Koreans are beginning to talk.

"This go on long time here," says one. "But before, nobody is shooting like this. They are coming from San Francisco with their guns."

"Nobody tell the police about the first one. It is surprise to know they are told of the other ones. The Koreans keep these things to themselves, always."

A Korean woman long familiar with the growing Seattle-Tacoma Korean community says the fighting is over a protection operation. Police agree.

"It's not very stylish, almost like robbery," she said. "If you're Korean, so you are expected to pay them some money or you get hurt."

"They can come into your club and make trouble, give it a name, all that. They can just sit around a table, drive people out. They'll take money from the bar or even the tips from a waitress. They'll shakedown in the sauna baths, the women are particularly vulnerable. It is easy to make trouble there, or to push a round."

"It's an old game, a strong-arm racket. And the Koreans are tough. They always have been. And had to. They've been called the 'nigger' of the Orient, and they've had to fight. They're proud and fierce. And independent."

"This began to come through loudly two weekends ago. It started with late-night gunfire in a downtown Seattle bar, a mean hangout. Police were not told of the shooting."

"One guy, a young Korean, was sitting at the bar," said a man with knowledge of the shooting.

"Another guy came in and they got into a dispute. It was a money thing, over territory it seemed. They were both in Korean; it was too fast even for me."

"I saw one guy, the guy who came in, just pulled out a gun and fired. He got him in the shoulder, or grazed his arm. There was blood. Everybody dove. The guy ran."

1978년 10월 15일자
 씨애틀 타임즈의
 컬럼니스트 리. 앤더슨
 이 썼던 기사.

* 미확인된 주소관 계로 피보를 받지못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전언 협조를 바랍니다.

"한인회는 여러분의 가정"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조 심옥

우선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회장이라는 곡만 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본인과 임원들은 이의 최선을 경주할 것을 제삼 약속드립니다. 한인회의 발전된 양상을 이제 피부로 느끼도록 오늘이 한인회를 이룩해 놓으신 지난날의 홀로막신 선성님들의 헌신적이었던 노고를 박찬고마움만으로 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고로여러분들의 항상적인 고로사회 참여의식과 적극적인 인문십 양면의 협조와 이해편답에서만 이 오늘이 한인회의 기쁨을 마련하였음에 또한 전심하고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우려했던 헌신들의 만족에 저울수만은 없는 아쉬움에 내일의 욕심을 구가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희망에 내일의 설계와 계획, 시행과 조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하는 한인고로사회의 좀더 견고한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씩 정미구축하여 더 많은 발전을 우리들 고로사회에 갖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하고싶은 수많은 계획들 입안이 지면상 말씀드릴수 없으나 무엇이든, 단 한 가지라도 고로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이해편답이 없이는 이룩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심본감안하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회는 진정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그 가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고 닦아야만 합니다. 그곳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애타한 정성이 녹여져야 합니다. 그 애타한 정성이 포도알용처럼 없이고 없혀 뒹어질 줄 모르게 동경해야 합니다. 그 희망에 우리는 이의 만족을 그대로 만끽하는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하고 그것 조그마한 정성이 동치고 모여 슬기모음을 잉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슬기모음의 잉태를 자자손손만 대에 안겨주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바빠들건데, 잘못하는 일 바로 지도하여 주시고 잘한 일 찬사를 아낌없이 주시는 고로여러분이 되어 저를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고로여러분들 각 가정에 전심이 바라는 마음, 항상 많으신 발전이 있으시고 이국사회에서 특히 건강에 유의 하시기 를 바라며 임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인사를 마칠 것입니다.

- 12월 25일 아침 -

1979년도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임원. 이사 명단.

임원	이사
회장 : 조 심옥	이사장 : 김 현중
부회장 : 김정부	부이사장 : 조 요한
이 령상	이사 : 한만삼
총무 : 문유기	안병용
심외부장 : 홍 식기	황수철
홍보부장 : 양택승	김재호
교육부장 : 김영민	
재무부장 : 김중진	
편집부장 : 한명옥	
봉사부장 : 당병식	
봉사부원 : 남택영	
체육부장 : 황성복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관의 장소를 알립니다.

주소 : 925. S. King St. TEL: 624-7604
Seattle, WA. 98104 624-7607

구직단
EVERETT 지역에 근무를 원하시는분으로 (남녀불문)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신분을 찾고 있습니다. 급료는 박업적으로 정할것으로 원하시는분은 한인회 봉사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봉사부.

아미랑 밤경품 기증자

1. 강 백원 (한국식품) : 쌀 100파운드
2. 김 상성 (김의 여행사) : 쌀 200파운드
3. 김 철준 (뉴욕 생명보험) : 디지털시계 1대
4. 김 현중 (파이오니어 부동산) : 카세트 2대
5. Mrs. 김 현중 (맥.퍼슨 부동산) : 쌀 100파운드
6. 백 용기 (그랜드.푸드) : 일본굴 1상자. 감비 10파운드. 팟시롤 2상자 (24개). 쌀 10파운드.
7. 송 진순 (중앙식품) : 한국인형 1개
8. 박순.페닝 (중앙식품) : 파면 5상자.
9. 안병용 (워싱턴 부동산회사) : 한국공경록자 1장
10. 이규영 (이규영 개미사) : 감비 40파운드
11. 임용은 (오대양식품) : 파면 4상자. 쌀 100파운드.
12. 홍동규 (National Trade Cooperation) : 말라 말라메비론 1대. 흑색 말라메비론 2대.
13. 미스미.락 (7-Seas) : 쌀 100파운드
14. 허남일 (101 Auto Repair) : 파면 2상자
15. 황수철 (엠.피.마틴 부동산) : 백미 100파운드
16. 백병동지희 : 백미 160파운드
17. 씨애틀 한국어행사 : 곡입 1상자
18. 파로마 한국어행사 : 곡입 1상자

아미랑 밤 기부금 납부자

1. 파로마 한인회 : \$100.00
2. 용영사관 : \$367.00
3. 허남일 : \$100.00
4. 단미.노 명조 : \$100.00
5. 이창희 선성님 : \$300.00
6. 맥진 Montoya : \$ 200.00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배려에도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하시는 사업과 계획 하시는 모든대사에 항상 발전이 있기를 간곡히 바라며 보여주신 훌륭한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임원 모두 잊으며 배합니다.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1978년도)

361. 박순이 : \$ 15.00
 362. 김중철 : \$ 20.00
 363. 최 익환 : \$ 10.00
 364. John L, F, Slee : \$ 15.00
- 1979년도 회비 납부자
1. 이동립 : \$ 50.00

일반기부금 납부자

- 노 김택 : \$ 40.00
- 부정위원회를 위한 기부금**
- 이동립 : \$ 100.00
- 양택승 : \$ 100.00

알림.

한글로 번역된 운전면허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드미오니 필요하신분은 한인봉사부바로 연락하십시오. (책자는 보신후에 필요하신분들이 다시 사용하실수있도록 반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회연락전화는 643-7604, 643-7607

1979년도 워싱턴주 한인주소록을 만들기위한고로여러분들의 주소를 접수하고 있으나 한본도 빠짐없이 아미랑에 기재 하시어 한인회로 우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한글:	전화
	영문:	
주소		

우송하실주소 :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편집후기

고로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많은 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고로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좋은 글을 항상 보내주시는 박건홍씨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정성스러운 글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그간수고를 많이 하신텐 김길망씨께서 인사를 맡아주실에 감사드립니다.

한 명옥.

입학원서

이름	한글				사 진
	영문				
주소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보호자 성명	한글			전화	
	영문			직업	
학생의 특기, 취미					
기타 요망사항					
<p>위와 같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979년 월 일</p> <p>보호자 _____</p> <p>시아틀 한인학교 귀하</p>					

"양수"

글. 양정숙

오늘 시원의 땅을 입고 있으니
저 자욱하게 떠오르는
월광의 고향이 있다.

몸소 고요를 품며
오직 살아있는 자에게만 운운하는
내 동해감이
만조는 찰떡이 깨어가 된다.

어디로 갔는가
떠나온 옛이여
동 뒤편 빛소리는 나직한데
소망하던 바다는 칙칙하고
천만 번 죽은 것들이 돌아와
내밀한 웃음이 된다.

선홍빛 띠는 가슴에 정물도 앉는 미역
아, 한 줄기 눈물을 떠 내뱉보내
부신의 이 시대를 적서버릴까.

오백오백 새벽을 거닐어
천지를 눈감게 하고 싶은 전을
오늘 시원의 하늘을 들여다보니
오는 봄이 예감하는 고향
고향이 있다.



기사환영

한인회보는 씨애플-워싱턴지역외에 타지역까지도 널리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정성스런 원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신자들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포 사회에 유익한 생활정보나 문예, 작품, 논설, 기마 어떤 내용이든 환영합니다. 마월 10일 까지 한인회 P.O. BOX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광고접수

한인회보나 한인주소록에 광고를 내고 싶으신분은 매월 10일 이전으로 광고의뢰를 하십시오. 영입용 광고원고를 만드셔서 한인회로 보내십시오.

食品도매

사업동정

대한식품도매회사 설립

신년들어 한 세득, 김영일 양씨는 씨애플에 한국식품 및 선물도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종전에는 서북부지역 한국식품업소들이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동지역에서 구입, 많은 운반비를 지출했으나 본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운반비 감감 및 직접 신속배달되는 등 한인업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주소: 8512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전화번호: 523-2106



안병용씨 (워싱턴 부동산회사) 사무실 이전.
이전 주소: 31220 Pacific Hwy. S. Room #12 Federalway, Wa 98003
전화번호 (씨애플): 941-1011 (타코마): 927-5305



"아름마 마켓" 신장 개업 안내
Federal Way 에 있는 Sea-Tac Village 쇼핑-센터 안 에 교포 정맥인 씨께서 "아름마 마켓" 을 개업 하였습니다. 각종 밑반찬과 젓갈류, 신선한 생선류 등을 구비하고, 바쁜 가격과 친절로 고객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의 많은 신 이용을 바랍니다. 주소: 31812 pacific Highway Federal way, Wa. 9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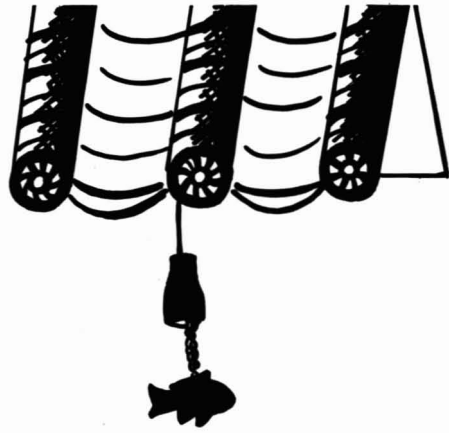
전화번호: 941-1123
(Ernst 옆에 있음.)



107 Auto Repair 를 하고 계시는 허남일씨는 본격적으로 바디.살을 시작하고 교포 여러분들에게 임가토 서비스합니다.

中央日報

중앙일보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모르는분들을 위하여 한인회보에 게재합니다.
새주소: 2684 S.W. 333 PL. Federal way Wa. 98003
전화번호: 838-3155



예술협회 7주년 기념행사

작년 12월 2일 역사 산업 박물관에서 연례행사인 삼만 축하 민속예술제전을 마치고, 이어서 오후 5시 30분부터 박 압 회장실에서 열린 예술협회 7주년 기념식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국민의례 끝에 박 압 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총영사관의 남홍우 영사와 대사관의 박희수 교육관과 변덕암 장노의 축하사가 있었고, 이어서 공로자들에게 공로표창을 수여하고 한국일보사에 대해서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식을 마친 후 축하만찬회에는 70여명의 유지들이 참석을 해서 외의 있는 하루를 보냈다. 표창받은 분들은 초대 부회장인 부식, 백인의 무용연구소장, 초대총무 조 영, 전총무 김수정(임원) 황수영, 김미애, (무용 연구소원) 오정숙(전합창부책임자) 김종숙(전유년부책임자), 감사기념품을 받은 사람들은 이정옥 목사, 신호범 선생, 조경희씨이며, 한국일보지국 조병우 선생에게는 감사장을 드리고, 당일, 역사 산업 박물관에 출연한 여러분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동협회에서는 부회장두 분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전무용연구 소장 백인희씨와 전 박로마부인회장 Lea .암스트롬씨라고 한다. 무용연구소장에는 조 경희 씨가 임명되었음.

1971년 12월에서 1978년 12월까지의 동회업적

- 미국측 각 계에서 초청 받은 고전무용 공연회수 : 41회
- 총 관람인원 : 63300명
- 어린이날 어머니날 행사 : 3회
- 참가인원 : 560여명
- 개천절 기념 어린이 미술전람회 : 3회
- 참가인원 : 400여명
- 박로마 대한부인회내 한국도서관 설치.
- 비치서적 약 4천권.

소식

2달에 한번씩 가지는 워싱턴주 고령자 친목회에서는 1월 8일 저녁 6시부터 씨애틀 한인교회의 최용길 목사님 태에서 친목회를 열고 1979년도 새 회장과 총무를 선출 했다. 작년에는 King 카운티의 고희 목사들중에서 선출되었던 최용길 목사님이 회장으로, 마코마 중앙교회의 이 현영 전도사가 총무로 수고하셨고, 올해에는 Pierce 카운티의 고희 목사들중에서 마코마한인중앙교회 정남식 목사가 새회장으로, 마코마 연합장로 교회의 옥 민권 집사가 총무로 선출되었다.

경희 대학교 동문회에서는 12월 16일 김 상목 회장님께서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1979년도 신입 회장단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회장에는 이영호, 부회장에는 김문규, 홍평임, 총무에는 백용기, 재무에는 김중현, 심의에는 홍삼기 씨입니다.

해병동지회

총무공순국정신으로 모친 와싱턴주해병동지회가 발족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씨애틀. 마코마에 거주하고 계시는 해병 예비역 (장교, 하사관, 병) 들의 회원 가입을 원 한다고 한다. 연락은 367-1280(조 심 배), 246-0977(김두영), 941-0839 (이항근).

집 팝니다.

1. 주소 : 1609 North 143d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33
가격 : \$ 53,500. 매달 지불액 : \$ 380
이자/년 9.5%, Mortgage Balance: \$ 38,000 남았음
\$ 5,500만 있으면 인수 할수 있음. 방 3 예. 넓은 뒷마당과 바로 옆에 시너버스 16번종점임.
Haller Lake School, Inomson Jr. School, Ingraham High School 지역임.
2. 새로 짓고 있는 집 (10채임)
지역 : 153 Street North, Meridian Ave
North Seattle 에 위치함.
3 Bed Rooms, 2 Baths, Shake Roof, Tri, or Split Level 임.
가격 \$ 79,950부터 10% down O.K.

연락할 곳 : 신은하 (365-6535)

MANNING REALTY

복미주의 한국인 (하)

Philip Kyung Sik Park 글

박 건용 옮김

편집자주 : 전호에 이어 Philip Park 목사의 글 남겨지부분을 실는다. 박경식목사는 19세기말 미국 초기 이민자인 조부모를 둔 한국인 3세이다. 박목사는 이 글에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보대로 미주에 살고있는 한국인이 가져야 할 주체적식문제를 진지하게 논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갖는 문제를 대처하는데 지침이 될만한 글로 생각되어 일독을 권한다.

근태수인종이 "아이덴티티"에 관하여 무엇인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소속되어야 할 곳은 자기들 자신의 인종유산의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제차적 관계가 백인 사회와 맺어졌다는 자신을 백인 사회에 소속시키려고 애쓸때 치르는 댓가는 너무나 크다. 백인 사회에 자신을 소속 시킨 사람은 사회적 생존을 해나가는 데는 성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한국인들은 구약성서에서 찢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찾아버린 야곱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덴티티" 특히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단지 새나라에서 모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문화와 전통은 다수인종의 문화속에서 좀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을 때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답 리 말하면 가령 걸보기에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인 학교들은 내용적으로는 보다 깊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책임이란 어린이들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도와 그들이 장차 되도록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진정한 주체적식을 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네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 우리는 다원 사회에서 살고 있다. 다원 사회란 여러가지 서로 다른 요소, 특히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조건속에서는 "아이덴티티"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다. 융광로직 사회동화이론 (역자주: 미국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융광로 같이 여러가지 서로 다른 인종. 문화적인 요소를 녹여 한 가지 단일한 체계로 동화시킨다는 이론) 의 결론도 사실 개인은 무엇인가 자기를 일체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개인이 미국인 또는 캐나다인이 될 준비를 참되게 갖추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전통적 유산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 사이를 동등한 지위에서 연관시킬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아이덴티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면에서 또한 찾을 수 있다. 심리학은 사람이 자기에게 누구인가를 깨닫고 있지 못하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고 있다. 사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역자주: 주체적식의 위기 즉,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는 지 몰라 방황하는 현상) 를 겪는 사람들은 소수인종뿐만 아니다. 그런 위기는 10대 청소년들에게 보통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인종의 얼굴 때문에 복잡해진다. 답 리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가지지 못하면 사회에 같이 살고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진정으로 연관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자존심은 자신의 강한 주체적식속에 포함되어 있다.

복미주에 살고있는 한국인들에게 주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주체성이 있음으로써 사람은 삶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생활관을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뉴욕의 통합신학교 신학교수 제임스. 본씨는 그의 저서 "놀린자의 하느님"에서 흑인 신학은 흑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 뜻 하는 바는 진정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적극적인 시각에서 삶의 경험을 대처할 수 있는 생활관을 얻게 되고, 인종편견과 차별대우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대등자로서 살고있는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삶을 복수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인의 주체성이란 맥락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갖는 신념이 보다 더 큰 뜻을 가지게 된다는 데 있다. 신념과 주체성은 서로 연결된다. 그것은 신념이란 생활에 가장 밀접된 경험을 직접 말해 주고 있을 때만 의의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념과 정치, 믿음과 주체성은 항상 같이 떠다니는 문제였다. 흑인 영가는 경험을 토대로 한 신념을 해석하는데서 발전되어 나온 것이다. 답 리 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념을 바탕으로 되고 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신념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복미주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과 다르다. 미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소속되어야 할 "아이덴티티"를 발전 시켜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살펴볼 때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려면 3,40년 정도 걸 리 겠지만 그것도 그리 빠른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적극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만 얻을수 있는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밖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자들이 두 가지 문화의 일부인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문화에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두 개의 가장 좋은 세계, 즉 조상들의 세계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이 두 가지는 서로 융화되어 신념을 가진 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보다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해줄수 있다.

"아이덴티티"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혼란 때문에 북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이들은 한국적인 것을 등한시하거나 완전히
거부해버리는 일이 흔히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긍정적으로 체감할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첫 단 계로 부모들은 이론제에 대한 자신의 모호한 태도를
정리하여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돕고 있다는 그릇된
착각 속에서 자신들의 "한국적인 것" 을 알보이도록 의식적
으로 애쓰는 일이 있다. 그런 부모들은 한국적인 것을 유지
하려는 것과 자녀들을 북미문화에 적응시키려는 것 두 가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인 사회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에 다른
한국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나라에 한국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던 때 나의 어린
시절을 회고해보건대, 만약 그 당시 내가 관심을 뒀을수 있는
한인 사회가 있었더라면 내가 겪어야 했던 주체외식의 위기중
일부는 모면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인
교회는 주체성을 보존·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수 있을 때
그들의 부름을 가장 잘 기억하게 된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들
과 조부모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은 지금 북미주에서 자라고 있는 세대에게도 연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적인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할 때, 특히 한국말을 배우려고 할 때, 그 노력을
잘 인정해주어야 한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한번 내가
어떤 한국부부와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들의
딸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국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다. 그 나이 어린 딸은
아주머니 이름을 잘못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답하는 말이 "어린 애들은 왜
그렇게 쉽게 배우지 못하는지 모르겠군" 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딸에 대한 신심이 없었다. 그는 어린 딸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생각은 않고 그냥 비판
만 한 것이었다. 이와 대조되는 다른 예가 있다. 언젠가
어떤 여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기가들이
한국말로 "어머니 이리와" 라고 부를 때 참 기분이 좋았다고.

본명이 이말은 바른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들을
격려하며 그가 한국말을 하려고 시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 것
이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에게 말을 바르게 하도록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 아이에게는 그런 입이 있었던 것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경험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모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이들이 한국에 대하여 갖는 관심이 부모들처럼
그렇게 깊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한국인의 주체외식이 느끼게 성장한다. 물론, 김국
에 가서는 어린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스스로가 발전시키는 것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쌓도록 해주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경험이 자신
에 대한 자존심의 일부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는
북미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에게 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인 이면서도 북미인 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형성
시켜주는 방향으로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나는
바란다. 이러한 주체외식 속에 이 나라에 있는 우미한 인텔리니미
의 장래가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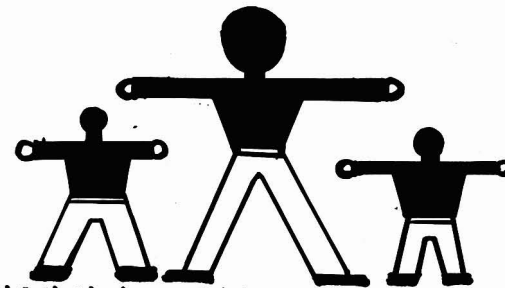
- 끝 -

(필자는 현재 뉴욕에 있는 "연립장노교외 아세아선교개발
사업" 에 종사하고 있다. 번역자는 지금 워싱턴 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논문준비중에 있다.)



알림
기능사협회(회장 김기영)에서는 근간 WEST SEATTLE
WHITE CENTER 에 장차 SHPFITTER 토씨 직장을 갖고자
하는분을 위하여 BLUE PRINT (설계도) 있는 법과 기본적인
방법과 기술을 김두영씨의 지도로 실시하고 있으니 지망또는
외문사항이 있으신분은 전화 762-2525 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지도시간은 매일 오후 6:30부터 10:00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건강한 미국생활을 위한 조언. 글. 배 세 현



20대 전후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생각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서양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이 동양과는 그 차이가 꽤 다르기
때문에 직장생활중 무미한 체력의 소모와 정신의 불안정
내지는 강박관념에서 맑고 순수하던 심신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를 가져와 거칠어지고 온기와 풍요를 잃어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즉, 자신은 감지 못한다 할지라도 타인이 느끼는 인상
과 감정은 싸늘하고 거칠 것은 한편 미국생활에 적응이 아직
안된 데 그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건강이 고진, 선, 미,
를 잃고 나면 우리는 올바른 이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심 게노한다. 폭력을 쓴다. 불신 집이다. 귀찮다. 조금 애진다.
등등은 이상을 잃어가는 징조인 것이다. 속담에 건강안육세
에서 건전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사회학적 계층변화
의 이론이나 심리학의 어떤 이론을 빌려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민들을 알고 있다. 불안과 정신병리학의 이론
보다는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첫째,
우리는 너무 밤 미 상공하려고 폭주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너무
돈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육체는 짐승이 동물중
에서는 제일 연약하다고 한다. 어떤 것이나 사업의 성공을 위
하여 무리하여 폭주하는 사람은 몸의 고장을 면할수 없다. 돈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돈이 주인이 되면 가장 포악한 주인이
된다. 우리의 수명을 생각해 볼 때, 지나친 육신을 삼가하는 것이
건강유지및장수의 비결중 하나이다. 다음은 건강유지및장수
를 위한 음식물에 관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1. **쌀밥을 가능한 한 그 양을 줄여가자.**
살의 주성분인 합수탄소가 영양으로 우리몸에서 산화하여
우리생활의 힘을 얻는 데는 비타민 B1, B2 가 필요하게 되는데
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B1, B2 라는 비타민의 부족현상
으로 인한다며 비이상적이고 피를 산성화시켜 밤 미노쇠현상을
가져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2. **김치는 매우 좋은 건강식품이다.**
김치를 담글 때 작은 생선의 뼈, 국물들을 첨가하면 더욱 더
좋다.

3. **콩을 밥이 섞어도 좋고 두부, 된장, 간장등을 만들어 먹으면
좋은 단백질 얻을수 있어 매우 건강에 좋다.**
4. **야채를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
야채속에는 많은 비타민류가 들어있어 건강식으로 매우 좋다.
장수하는 사람중 대부분이 야채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수에 야채가 필수음식인 것을 알수 있다.
5. **생선을 많이 먹으면 양질의 단백질과 생선의 작은 뼈
에서 얻을수 있는 칼슘은 우리몸에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6. **고기류의 양을 줄여가는 것이 좋다.**
고기중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질은 우리몸기관중 간, 신장,
혈관내에 축적되어 지방산, 지방심, 동맥경화등의 증세
와 더불어 고혈압, 저혈압, 비만증, 심장병등 아주 좋지
못한 합병증을 수반하여 40, 50대에는 들이킬수 없는 병을
입힌다.
7. **술·담배에 관하여.**
술은 매우 좋은 음료지만 마실 줄 아는 사람에겐 양이 되지만
남용하는 사람에겐 매우 무서운 독약이 될수 도 있다.
식사전에는 가벼운 것으로, 식후에는 약간 강한 것으로 하되
본수에 맞게 마시면 좋다. 알콜중독이라는 무서운 병을 생각
하면 매우 조심있게 마셔야 될 것 같다. 담배는 애초부터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폐암환자의 70% 정도는 흡연자임을
보면 확실하다. 서양사람들의 3가지 나쁜습관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퍼주는데 있고 보면, 술,
담배는 매우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될 것 같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고쳐 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위와
같은 점을 지키며 생활하는 때로서 병의 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가 많고,
좁다는 것을 짐작한다. 그러나 그 보잘 것 없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성실히 살아본다는 것이 꾀와 고뇌의
심연에서 방황하는 것보다는 훨씬 값어치 있는 **생일** 것이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도 건강문제에 관한 조언을 써 보려고
한다.

필자: 전 상암 고백 안의 원원장
캘리포니아 한방면허소지.
국제 침술·외약협회 정회원.
서울대학교 졸업.



그랜드 식품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미래를 지향하는 그랜드 식품점, 나 날이 발전하는 시애틀 코먼 여러분 속에. 저희 그랜드 식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육의 맛을 성심껏 전해 드릴수 있는 최선에 방법을 다 하려고 오늘도 온정성을 다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하옵니다. 갈비와 물고기는 미리 주문해 주세요. 단체 주문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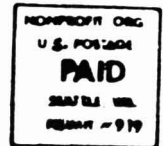


8512 20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206) 525-833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0505 00000314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